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02)(12/11/2021)

제 3 권 내적 위로

제 9 장 모든 것을 궁극적인 목적이신 하나님께 의뢰함, 1 절

시 19:1 -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 148:3-5 - 3.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이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4.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5.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시므로 지음을 받았음이다.

시 8:4-6 - 4.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6.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1. <그리스도> 아들이야, 네가 진정으로 복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의 최고이자 최종적인 목적이어야 한다. 그런 목표가 확실히 있을 때, 늘 자기 자신과 피조물들에게로 기울던 네 마음의 성향이 정결해지게 될 것이다. 어떤 일에서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추구하면, 그 즉시 네 속에서는 결핍이 생겨나서, 너는 메마르게 되고 시들어 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너는 모든 것을 가장 먼저 내게 의뢰하라. 그 모든 것은 내가 준 것이다. 너는 그 모든 것이 최고의 선인 내게서 흘러나온 것임을 명심하라. 그러므로 모든 것을 그 근원인 내게 돌리고 의뢰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과 해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 1 번 질문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이며, 이에 대한 대답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이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시 19:1 -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시 148:3-5 - 3.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이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4.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5.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시므로 지음을 받았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지향점이 무엇이어서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한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를 전혀 위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나를 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나의 일을 감당해야 하고, 나의 건강을 관리하고, 나의 욕구의 충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내가 정한 다양한 종류의 목적 성취를 위해 애쓰며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 자체이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유는, 우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점이며 동시에 종착점이다. 사 48:12 -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완전히 안긴다는 것을 아는 사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쳤을 때 오직 주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심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관심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둘 수 밖에 없으며, 그 외의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와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달려갈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 사도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서두에서 빈번하게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엡 1:1 -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기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한 바울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한눈 팔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달려다. **빌 3:14 - 뜻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완전히 사라지는가? 우리의 존재 가치와 존엄성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시거나 우리의 존엄성을 폄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관심과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이다. **시 8:4-6 - 4.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6.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구원하실 만큼 인간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적 본분을 기억하고 그 본분대로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한 삶의 결과이다. 우리가 피조물됨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그 자체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그분의 뜻을 위해 달려가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과 은혜의 길이 된다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복과 은혜는 하나님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을 때 주어지며, 하나님을 떠날 때가 아니라 찾을 때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가 아니라 순종할 때 누리게 된다. 아울러, 나의 육신적 뜻을 내려 놓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나에게 임하는 것이다.

신 30:9-10 은 복의 길을 제시한다. **신 30:9-10 -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하는 길이며 우리 자신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최선의 결과는 내 뜻과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것이다. 나는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무엇을 위하여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진정한 성공의 길, 형통의 길, 복의 길 위를 걷고 있는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나를 비롯한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나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음으로 진정한 복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장기간 계속되는 펜데믹의 혼란 속에 힘들어하는 가난하고 연약한 많은 백성들을 특별히 보살펴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3. 우리가 속한 미국장로교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참된 영적 부흥을 다시 경험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